



**1 체코관광청 “한국인 관광객 2주 자가격리 없이 입국”**

체코관광청은 지난 7월 15일 체코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2주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체코관광청 관계자는 “한국인 여행객이 아무런 제한 없이 체코에 입국할 수 있도록 국경 개방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유럽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 국가로 한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을 선정한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자들을 위한 무비자 입국은 즉각적으로 발효됐으며,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 국민은 체코 입국 시 코로나19 의무 검사나 의무 격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착 후에는 체온측정 등 건강 상태와 증상에 대한 기본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신규 취항지 제안하세요” 핀에어, 마케팅아이디어 공모**

핀에어가 고객이 직접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벌이고 있다. 공모전에는 핀에어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확대된 핀에어의 국내선 활성화 방안, 경쟁력 있는 국제선 신규 취항지와 활성화 방안,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연중 최대 할인 프로모션인 진마켓(진 MARKET)의 개선 방안 등 4가지 공모 주제 중 1개를 선택해 8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3 핀에어, 한국 등 아시아-유럽 주요국 운항 재개**

핀에어(한국지사장 김동환)가 인천~헬싱키 노선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주요 도시 간 항공 운항을 지난 7월 4일 재개했다. 인천~헬싱키 노선에는 A350 항공기를 투입해 주 3회(수·토·일) 운항 중이다. 핀에어는 국경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 노선의 편도 항공편을 하루 최대 80편까지 늘렸으며, 로마,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르샤바 등 유럽 주요 도시 운항을 추가로 재개할 예정이다.

핀란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의 비즈니스 여행객에 한해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기도 했다. 핀에어는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별도의 검역 과정 없이 핀란드 방문이 가능하며, 2주간의 자가격리 규정이 권고사항일 뿐,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4 코레일관광개발 “전국 레일바이크 한자리서 예약”**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7월 20일 국내 레일바이크 여행상품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한 ‘통합 레일바이크 웹사이트’의 운영을 개시했다. 통합 레일바이크 사이트는 전국에 산재한 레일바이크 정보를 한곳에 모아 조회·예약·결제할 수 있고, 지역 관광지와 행사·숙박 정보 등 각종 관광 정보도 함께 담았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강원도 정선과 정동진, 경기도 양평, 전라도 곡성과 여수, 경북 청도, 충남 아산, 인천 영종도 등지의 레일바이크를 예약할 수 있다.

**5 프린세스 크루즈 2021~2022년 미국 일정 발표**

프린세스 크루즈는 오는 2021년과 2022년 미국 서부 주요 지역 크루즈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지난 7월 3일 밝혔다. 노선은 멕시코, 하와이, 캘리포니아, 태평양 북서 해안 등이며, 14만급 대형 선박인 마제스틱 프린세스(Majestic Princess)호 등 모두 5척의 크루즈선이 투입된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선상 프로그램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와인 시음, 멕시코 미각 여행과 하와이 열대 섬 생활 등 다양한 기항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올여름 시즌 모든 크루즈 운항을 중단한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6 필리핀 관광부, 랜선 여행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

필리핀 관광부는 필리핀을 여행한 사진을 업로드하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8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이벤트에 응모하려면 자신의 SNS 계정(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지난 필리핀 여행 사진과 함께 내용을 올린 뒤, 필리핀 관광부 페이스북에 해당 URL을 댓글로 달면 된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보라카이나 보홀, 팔라완 사진 또는, 다이빙, 스노클링, 도보여행, 스파, 미식 등 필리핀 고유의 액티비티가 담긴 사진이 우대된다.



**1 천리포수목원, 여름 휴가철 연장 운영**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5일까지 수목원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오후 7시까지 개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특정 시간에 관람객이 몰리는 것을 막고, 한낮 더위를 피해 수목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목원은 설명했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고 민병갈(1921~2002)씨가 1970년부터 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됐다.



**2 아침고요수목원, 무궁화 전시회**

아침고요수목원은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우리꽃 무궁화, 다시 보기'를 주제로 무궁화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종류별 무궁화 약 100여 품종이 전시되며, 수목원 내 무궁화동산 일대에 조성된 무궁화 전시장에는 무궁화 품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무궁화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도 소개돼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무궁화 작품 전시회도 열린다. 사진과 디지털 그림, 일반 작품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3 '국립공원 여권에 인증 도장 받으세요'...스탬프투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해 '국립공원 여권 여행'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여권 여행'을 위해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곳 국립공원의 탐방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여권' 1만 권을 각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탐방객은 공원별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생태탐방원, 체험학습관 등 94개 시설에 비치된 방문 인증 도장을 '국립공원 여권'에 찍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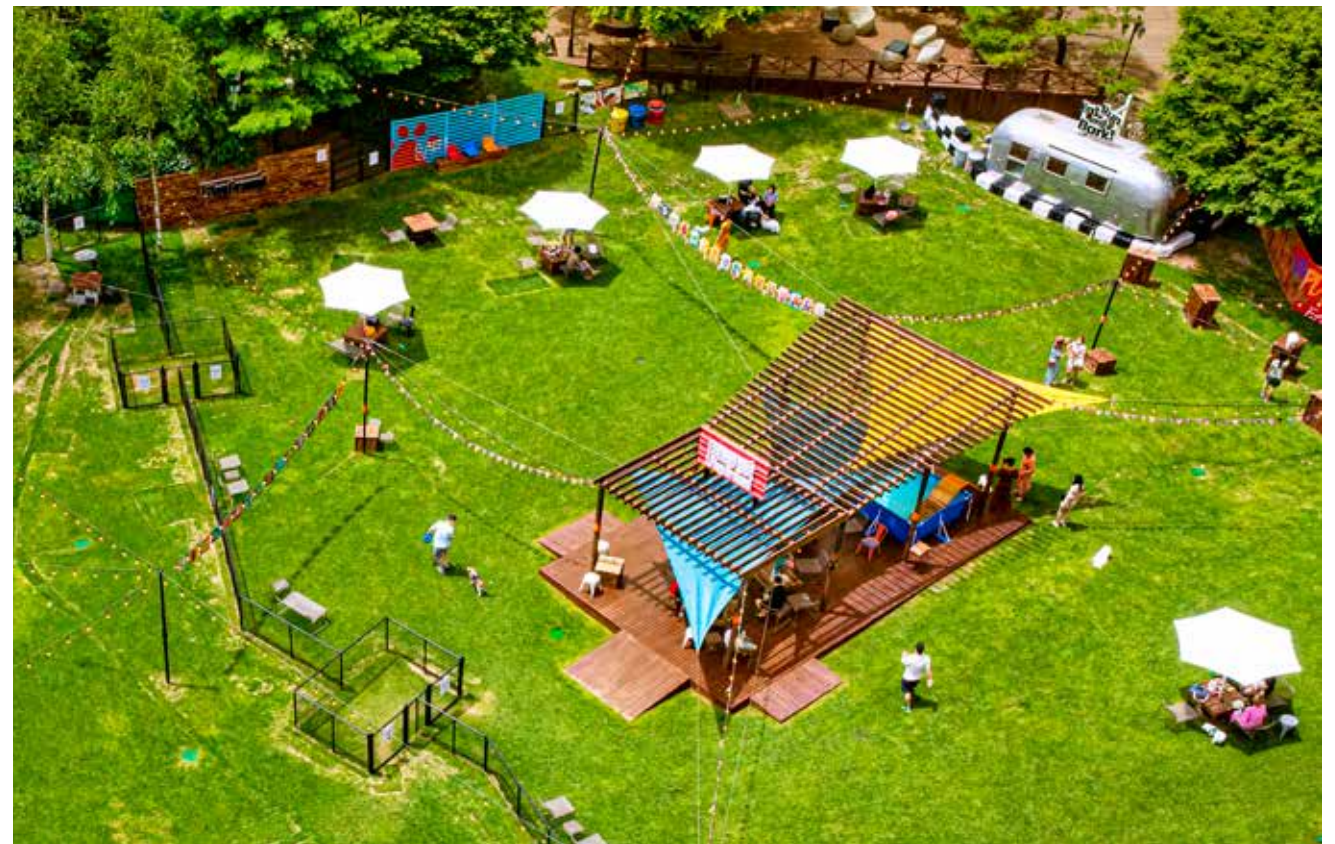
**4 통영 '펫 프랜들리 케이블카' 운행**

경남 통영케이블카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문화 확산에 맞춰 개, 고양이와 함께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펫 프랜들리 케이블카'를 운영한다. 강아지, 고양이 스티커를 붙인 반려동물 전용 케이블카는 총 2대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고객만 탑승할 수 있다. 탑승객 한명당 케이지에 넣은 반려동물 1마리를 동반할 수 있다. 케이블카 1대당 승객 4명, 반려동물 4마리까지 태울 수 있다.



**5 월악산국립공원 송계자동차야영장 재개장**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송계자동차야영장을 정비한 뒤 최근 재개장했다. 한수면 송계리의 야영장은 총 67동 규모(자동차 영지 61동·카라반 영지 6동)로 운영된다. 공원사무소는 야영장 내부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데크 쉼터, 전망대 등 체험시설을 설치했다. 또 야외 개수대, 화장실, 전기시설, 주차공간 등도 개선했다.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에서 최대 2박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1박에 1만9천원이다.



**6 소노펫클럽&리조트 개설**

소노호텔&리조트는 비발디파크와 소노캠 고양이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소노펫클럽&리조트'를 열었다. 소노펫클럽&리조트는 반려동물 동반 객실 숙박은 물론, 객실에서 숙박과 반려동물 대상 식음·병원·미용·교육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700평 규모의 야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개점을 기념해 비발디파크와 소노캠 고양이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됐다.